

Islamic Thought in the Dialogue of Cultures : A Historical and Bibliographical Survey

Leiden; Boston: Brill, 2012

이경희*

저자 한스 다이버(Hans Daiber)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요아네스 볼프강 괴테 대학교(the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에서 동양철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의 철학과 신학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으며 이슬람이 계승해오는 그리스 문화에 관한 연구를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아랍 문헌들의 역사와 이 문헌들이 라틴 유럽 세계로 전달되는 경위와 번역된 서적들을 소개하였다.¹ 한스 다이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슬람철학 참고문헌시리즈 3권』(Bibliography of Islamic Philosophy, 3 vols)²이 있다.

『문화간의 대화, 이슬람의 사상에 대한 역사적, 서지학적 연구』는 이슬람 철학이 그리스와 라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에서 아랍으로 그리고 다시 라틴세계로 전해진 지식들- 철학, 신학, 의학, 과학 등-의 전달 경로와 그 분야별 문헌들을 시대별로 소개하였다. 제1장과 제2장은 철학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꾸란에 나타난 이성주의(Rationalism)를 다루었는데 신적 통치(theocracy)와 인간의 자율성(individuality)에 대한 논의를 심화 시켰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의 이성주의가 그리스, 시리아, 이란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학문적으로 형태와 방향을 갖추게 된 점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 선교학

1. Google. "Hans Daiber." Last modified 10, 2012.

http://www.brill.com/brill-search/results/author_editor%3A%22Hans%20Daiber%22.html.

2. Hans Daiber, *Bibliography of Islamic Philosophy*, 3 vols. (Leiden: Brill, 2011).

이슬람 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영향력들을 바탕으로 이슬람 철학이 (종교 영역과 구별하여)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해나간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이슬람 이성주의의 배경과 그리스문화에서 분석한 역사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제5장과 6장은 본격적으로 그리스어-아랍어-라틴어로 이어지는 번역서들의 전파와 이에 따른 문화 간의 대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유럽의 사상이 아랍과 이슬람의 문화적 사상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주장 위해 스페인 무슬림 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의 학문 활동을 다루었다. 또한 그리스의 문화적, 철학적 영향 아래 그 사상들 발전시킨 이슬람의 대표적인 중세 학자들, 알 킨디(al-Kindi), 알 파라비(al-Farabi), 이븐 시나(ibn Sina)와 알 가잘리(al-Ghazzali), 그리고 아베로에스(Averoes)의 사상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7장과 8장에서는 유럽 지성사에 내재한 이슬람적인 근원들에 대한 탐구와 의미들에 대한 미래 연구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1. 철학의 의미와 작용

이슬람에게 있어서 철학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필라소피아’(filosofia)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love of wisdom)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이슬람의 사상 곧 철학은 인간의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으로서 이슬람의 문화와 그 종교에 대한 가치 있는 지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문화’라는 상황(context) 안에서 이슬람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hikma)라는 뜻이다.

철학에 대한 이슬람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인식론(pythagorean etymology)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지혜에 대한 사랑’(love of wisdom)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지식’(knowledge)은 일차적으로 꾸란과 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이고 법학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제국의 확장 기간 동안, 무슬림은 더한층 다양한 문화에 직면하여 외국 학문을 수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과 자연 과학의 도전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란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용과 거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은 무슬림들에게 이론적인 통찰과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슬람 철학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들이 서로 조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철학은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대화이기도 하다. 특히 유럽과 이슬람의 사상적 결합이나 영향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할 때 양자의 공통적인 배경으로서 그리스 사상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 사상은 이슬람 안에서 꾸란의 세계관 속으로 동화되어 중세 유럽의 스킨라주의 철학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덕분에 이슬람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리스의 사상적 토론과 논쟁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슬람과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그리스 사상을 전유함으로써 양자는 사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거울(picture)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철학 분야에서는 양자 나름의 해석을 다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³

2. 초기 이슬람의 이성주의

19세기 유명한 오리엔탈리스트인 에른스트 레난(Ernest Renan)은 이슬람과 이성주의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해 동시대 이슬람 사상가 자말 아딘 아프가니(Djamāladdīn al-Afghānī)는 이슬람이야말로 인류의 과학 발전에 기여한 종교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이슬람의 이성주의는 11세기 이슬람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법률가였던 알 가잘리에 의해서 그 중요점이 강조되었다. 그는 이슬람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는 이슬람 종교를 구성하는 큰 축이라고 설명하였다.⁴

초기 이슬람의 이성주의는 꾸란의 정경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꾸란의 4개의 필사본-쿠파(Kufa), 바스라(Basra), 다마스쿠스(Damascus), 마카(Makka) 지역에 보관되어져 온 필사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을 고찰해볼 수 있다. 우마이드(Umayyad) 왕조와 압바시드(Abbasids) 왕조 시대에 활

3. Ibid., 2-3.

4. Ibid., 6.

동하였던 문헌학자(philologists)들은 꾸란 해석을 위해 꾸란 독경에서 발생하는 아랍어 특유의 모호한 내용들을 제거해버리는 작업에 몰두했다. 또한 사전 편집(lexicographical) 작업을 기초하였고 문헌의 과학적 분석과 보관을 위해 꾸란 필사본들을 수집하고 구분하여 표준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꾸란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시켰다. 꾸란 외에도 하디스를 구술로, 혹은 문서로 전하는 작업에도 과학적 기술이 사용되었다.⁵

꾸란의 정경화 작업과 문헌학, 하디스의 구술 작업과 문서 작업이 과학적 기술을 통해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이슬람의 철학적 사고는 이슬람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중요한 이슈들을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였다. 이슬람 사상에서 인간은 예정론과 자유 의지론 사이에서 진자역할을 한다고 본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신은 오직 명령과 금지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며 상과 벌을 결정할 뿐이다. 이러한 인간 자유 의지 중심적인 사고는 카리디트 사법 안 나드즈라니(Khāridjite Shabīb an-Nadīrānī)에 의해 주도되었다.⁶ 그에 의하면, 신의 동의나 인도와 상관없이 인간은 스스로 행동한다. 또한 알 하산 바스리(al-Hasa al-Baṣrī)에 의하면, 신은 인간의 결정과 행위를 미리 알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인과 관계로 설정해볼 수 있다. 즉 신은 원인을 창조하였고, 창조된 원인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뤄졌으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로써 인간은 의지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불연속적인 측면을 지니며 신을 인정하지만 신의 지식은 표현될 수 없고, 무한한 힘으로만 설명될 뿐이다. 이러한 사상은 무타질라 학파에게로 계승되었다. 무타질라파는 예정론을 부정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을 중요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윤리적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⁷

5. Ibid., 5.

6. 카리디트(Khāridjite)는 예언자의 권위를 최소화 하고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심판받는다는 주장을 하여 이단자로 규정되었다. Ibid., 23.

7. Ibid., 36-39.

3. 그리스 문화와 이슬람의 이성주의와의 만남: 번역의 시대 그리고 이슬람 철학의 발전

이슬람에서는 고대 문화유산에 대해 문서화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책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로시우스(Orosius)의 『이단을 대항한 역사』(History against the Heathens)가 있다. 이 책은 5세기에 집필되었고 8세기, 스페인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저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 호머의 책과 금언집들이 번역되었다. 이를 통해 아랍인들은 당시 세계적인 지식을 맛볼 수 있었으며 그것을 다시 이슬람적인 세계관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이슬람 초기 시대에 그리스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시리아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흩어져 살았으며 단성론자들(monophysites)라고 불렸다. 이란 동부 쪽에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분파인 네스토리우스 교인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그리스어와 아랍어 번역 사업에 동참하였다. 이들에 의해 그리스와 인도에서 발달했던 천문학과 점성술, 철학 등의 학문들이 그리스어에서 시리아어로 번역된 후에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특히 문화와 학문에 개방적이었던 사산 왕조의 샤푸르 1세(Shāpūr I, 240-273 통치)와 코스로우 1세(Khosrow I Anūshirwān, 531-578)의 지원을 받아 교류와 번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학자들과 대화하고 꾸란에서 비롯된 세계관을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이성주의적 접근은 후에 무타질라 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363년 사산 왕조(Sasanians)에 의해 니시비스(Nisibis)가 정복된 후 동방 시리아 기독교의 학풍이 소아시아의 에데사(Edessa)로 옮겨졌다. 니시비스 지역에서 에데사로 옮긴 네스토리우스의 학자들은 과거 로마 점령지였던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인 『오르가논』(Organon)을 번역했다. 또한 기독교 출신 의사들에 의해 그리스의 의학 서적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 사업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 바그다드였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시리아의 물리학자들이 과학과 고대지식들을 번역하였고 바그다드에는 알 마문의 후계자들이 활동하던 “지혜의 집”이라는 도서관

8. Ibid., 44-52.

이 있었다. 이곳에서 알 마문의 학문이 하란으로 전파되었다. 하란은 의학이 발전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해석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주석을 발달시켰고 부분적으로 신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학에 영감을 주었다.⁸

한편, 사산 왕조에는 시리아 기독교인들 외에도 조로아스터교 출신의 과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의해서도 점성학, 천문학, 수학의 책들의 번역 사업이 발달하였다. 그리스 아랍어 번역 사업은 간접적으로는 사산-인도 제국과 알렉산드리아 학파로부터 시작하여 직접적으로는 네스토리우스교의 단성론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연금술, 점성학, 우주학, 천문학 등의 과학은 세계의 원리와 신에 관한 지식, 신의 창조를 이해하는 과학이 되었다.⁹

압바시드 왕조의 알-만수르(al-Mansūr, 754-775)의 지원 하에 페르시아제국에서 사산왕조로 계승되어오던 과학이 그리스로 전파되고 그것이 다시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바그다드에 “과학 도서관”에는 그리스의 의학서적과 특히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5th B.C)와 갈란(Galen, 2nd c. A.D.)의 서적이 번역되었다. 이처럼 기독교-그리스의 통합된 세계관의 영향은 알 킨디와 같은 아랍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알 킨디(Abū Yūsuf Ya`qūb Ibn Ishāq al-Kindī, d. 866)¹⁰는 신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과 이 세계와 신의 질서는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알 킨디는 무슬림 세계에 그리스와 헬레니즘을 적용하고 발전시킨 인물으로서 그리스의 영향으로 인해 첫 번째 진리(the first truth; the ultimate being, 궁극적 실체-일자),와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의 개념을 입안하여 감각세계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에 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플로티누스(Plotinus)의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스 선집』(Enneads), 풀피리(Porphry)의 주석이 번역되었다.

9. Ibid., 54-55.

10. 이슬람의 철학자 알 킨디는 바그다드에서 그리스어 원전의 아랍어 번역에서 힘입은 과학 운동에 참가했다. 그 자신의 고대 텍스트의 번역자로 볼 수도 있으나, 자신가이며 귀족이었던 그는 많은 기독교 번역자를 채용하였고 때때로 그들이 아랍어로 잘못 옮긴 부분의 번역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으로 간주되었던 그 유명한 『신학』이 압둘 마시흐 알 힘시(‘Abdol-Masih al-Himsi)의 손을 거쳐 그를 위해 번역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를 위해 이 밖에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일부가 에우스타티오스(Eustathios)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븐 알 나딤(Ibn al-Nadim)이 <도서목록>(Fihrist)에 의하면 260권 이상의 작품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앙리 코르방 저, 김정위 역, 『이슬람철학사』(서울: 서광사, 1997), 209.

4. 이슬람 철학의 독립

중세 이슬람 대학인 마드라사(madrasa)에서는 ‘철학’(falsafa)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주로 칼리프들이나 지배자들의 후원으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후원자들의 개성에 따라 학문의 영역이 결정되었다. 이슬람에서 철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의학과 천문학 등의 그리스 문헌에 무슬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이슬람의 신학자들은 논리학이나 논증의 방법을 통해 신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신학을 위한 철학, 논리학, 존재론, 변증학 그리고 형이상학이 발달했다. 이 때문에 ‘신학을 위한 봉사’ 혹은 ‘신학의 시녀’(ancilla theologiae)라는 개념이 조성되었다.¹¹

이슬람에서는 꾸란, 종교적 전통 그리고 이슬람적 이념으로 인해 철학의 역할이 규정되다가 점차로 철학 고유의 영역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철학을 포함한 과학이 자주성을 회복하고 독립된 영역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발달된 이슬람 철학은 이슬람 정통 신앙에 대한 도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무슬림 신학자들에게 비 이슬람 종교와 영지주의적 이원론적 세계관을 구별하는 도구가 되었다.¹²

이슬람의 첫 번째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알 킨디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따라 “사물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였다. 그에게 형이상학으로서 제일 철학은 최초의 원인에 대한 지식이며, 이것은 모든 진리의 첫 번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자면, 원인에 대한 지식은 결과에 대한 지식보다 더 선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설명은 철학에 대한 이슬람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이슬람 철학자들은 철학은 모든 존재의 신적인 원인을 찾는 것으로 이러한 사상을 이해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이슬람 철학자 알 킨디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로 대표되는 꾸란의 신학을 철학적 사고로 전환시켰다.

알 킨디는 우주, 인간의 육체, 운동,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써 외부의 원인이란 곧 절대적인 단일성(absolute uni-

11. Ibid., 66.

12. Ibid., 67.

ty), 일자(the one)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신성한 일자는 인간의 정신과 같은 특수한 개별자에게 재현된다. 이에 따라 철학은 첫째 신적인 원인이 되는 진리를 탐구하고, 둘째 인간의 행위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윤리적 고찰을 수반한다. 이러한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³

이처럼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의 두 영역을 강조하게 된 아랍의 철학은 알킨디를 시작으로 하여 알라지(Abū Bakr ar-Rāzī, d. 925), 알파라비(al-Fārābī, d. 950)에게로 계승되었다. 알라지에 의하면, 모든 이들은 철학적 능력을 지니며 철학을 통해 인간은 열정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이성으로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이다. 신으로부터 유출된 이성은 인간의 정신을 일깨우며 육신의 장애를 벗어나 신이 부여한 원형으로 복귀하게 한다. 알라지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알파라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적용하여 이상적인 국가관과 윤리적인 인간관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는 철학의 실천적인 덕목을 강조한 것으로서 종교와 인식론 그리고 윤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⁴

5. 유럽 세계 안에서 이슬람의 영향

이와 같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철학은 유럽세계로 들어와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전달되었다. 이곳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 가운데 문화와 학문의 교류가 활발했다. 1236년 기독교 왕국의 코르도바 정복, 1248년 세비야 정복, 그리고 1492년의 그라나다 정복 등 기독교 왕국의 레콘키스타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학문적 교류는 멈추지 않았다. 특히 문화와 학문의 교류는 지중해 연안에서 활동한 상업인의 교류를 따라 이뤄졌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스,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의 상인들은 이탈리아 상인들과 접촉했다. 스페인의 아랍인들은 건축과 음악, 과학과 의학의 학문과 기술들을 전수해주었고 이러한 교류의 중심은 톨레도(Toledo)가 차지했다.

13. Ibid., 68-71.

14. Ibid., 72-76.

약 8세기부터 무슬림의 통치를 받아온 시칠리아의 이슬람 문화와 12세기-13세기 십자군 운동,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 회복 과정은 유럽 안으로 들어온 이슬람을 연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10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아랍-이슬람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서 아랍어 번역서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지 회복과 이교도 개종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꾸란을 비롯한 아랍어와 문학이 이뤄졌다. 13세기 카탈로니아 출신의 라몬 룰(Ramon Llull, 1232-1316)은 이와 같이 시작된 이슬람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독교 변증을 시도하였다. 그는 알 가잘리, 이븐 시나의 사변 신학과 스피클라톤주의 방식의 이슬람 세계관을 탐구하여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기독교 교리를 그들의 언어와 화법으로 풀어내었다. 라몬 룰은 대화주의자로서 당시의 십자군 방식의 폭력성을 탈피하였고 이슬람의 문화와 학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무슬림을 접했다.

이후 15세기 오트만 제국이 팽창되면서 직접적으로 이교도와 접촉하여 종교적인 이슈로 쟁론하던 전통을 발전시켜 전문적으로 아랍과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문 활동으로 이어졌다. 주로 아랍문학과 이슬람 종교, 역사에 관한 연구로서 아랍어 문법책이 발간되었고(Guillame Postel, 1534) 중동 역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Joseph Scaliger, 1540-1609), 아랍어-라틴어 사전(George Wilhelm Freytag, 1788-1869)이 발간되었다.

16세기 이뤄진 이슬람 연구는 역사와 신학, 성서연구와 셈어(아랍어와 히브리어) 철학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아랍어 어원 연구는 꾸란 번역과 병행되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서와 대조하여 아랍어 어원을 추적하고 주석을 위해 동방세계에서 이뤄진 번역서들(Oriental versions)을 참고하였다. 이 시기 독일의 아랍 전문가 요한 제콤폰 레이스크(Johann Jacob Reiske, 1716-1774)는 아랍어 시집, 금언집, 의학서적, 화폐학, 이슬람 역사학을 집필하였다.¹⁵

이슬람 연구에 있어서 유럽의 최초의 오리엔탈리스트는 포콕(Pocock)이다. 그는 아랍 원고들을 주해하고 번역하고 또 편집하였으며 이슬람 사상을 유럽 사상의 발전의 거울로 삼았다. 17세기,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전학, 문법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슬람 역사 사료에 대한 편집과 분석에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15. Ibid., 216-17.

구스타브 웨일(Gustav Weil), 알로이 스프렝거(Aloys Srenger), 테오도르 뉴들케(Theodor Nöldeke) 등이다.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사실 이슬람 학문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연구를 했다.¹⁶

6. 평가

이 책은 아랍철학이 그리스적 영향을 상당히 짙게 받은 사상으로 라틴 유럽의 철학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역사적, 서지학적 조사를 통해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슬람과 유럽 간의 사상적 연관성을 탐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슬람과 유럽의 학문적 교류가 결국 대화의 한 형태임 밝히는 논증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이슬람 철학에 대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서 철학이 종교와 견주어 어떻게 발전하고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갔는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비판점을 남긴다. 이 책은 초기 이슬람, 중세 이슬람, 근대 이슬람의 순서로 구성하여 철학의 발달과 각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과 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시대적 구분 이 이슬람 철학을 이해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질문해볼 수 있다. 즉 서양의 철학사적 관점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을 이슬람 철학에 그대로 대입하려 할 때 이슬람 전통파(순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신비주의 등 다양하게 병존하였던 사상의 차이들을 면밀하게 조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¹⁷

둘째, 이 책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슬람 철학의 연원을 밝히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순니파와 시아파 양대 종파의 철학적 탐색과 사유 방식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질문

16. Ibid., 218-19.

17. 앙리 코르방은 이러한 서양 연대기적 구분에 대한 대안으로써 쿤트보텐 아쉬케바의 구분을 참고한 바 있다. 제1기는 아베로에스의 사망까지, 제2기는 이란의 사파비조 르네상스 이전 3세기의 기간, 이 시기는 주로 수피주의 형이상학 시기라고 불린다. 이는 아라비아학파 및 나즘 쿠브라 학파가 발전하였으며 수피즘과 열두 이맘시아파와의 재결합, 수피즘과 몽고족에 의한 알라무트 파괴(1256) 이후 수정 이스마일파의 재결합의 성과가 이뤄졌다. 제3기는 16세기 사파비조 르네상스를 계기로 이란에서 사상이 현저하게 발전한 시기이다. 앙리 코르방 저, 김정위 역, 『이슬람 철학사』(서울: 서광사, 1997), vi.

해볼 수 있다. 순니파와 시아파는 신앙 고백과 의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순니파는 율법과 꾸란 해설에 주안점을 두어 이슬람 신앙의 외피를 단단하게 해왔다면, 시아파는 이슬람 신앙의 내적인 측면 즉 비의(祕儀)종교로서의 구조와 형식에 의미를 두고 발전시켜왔다. 분명히 이러한 차이는 이슬람 철학에도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리스적인 영향으로만 집대성하려는 것은 이슬람 사상을 지나치게 유럽의 성향에 맞추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셋째, 그 동안 서구 학자들은 아랍 철학을 유럽의 지성사(특히 중세 후기)에 영향을 끼친 정도로만 대해왔다. 더구나 라틴 서구 세계에 영향을 미친 아랍 철학을 이슬람 철학 전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논의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랍 철학과 이슬람 철학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적인 것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함의하는 이슬람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학회지, 학술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의 경우

최영길, “꾸란에 등장한 인물연구 : 예수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 회논총』, 제16권 제2호 (2006), pp. 10-12.

안 신, “이슬람 다외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 연구』, 제50집(2008 봄), pp.234-239.

Ah Young Kim, “Quran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ith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 No. 1 (Feb. 2008), pp. 58-60.

(5) 편집된 책 속의 글

김정위,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운동”, 이슬람연구소 엮음,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서울: 예영, 199), p.49.

Lamin Sanneh, “Islam, Christianity, and Public Policy,” in Lesslie Newbigin, Lamin Sanneh, & Jenny Taylor, eds., *Faith and Power – Christianity and Islam in ‘Secular’ Britain* (London: SPCK, 1998), pp.29-38.

(6) 바로 앞의 인용과 동일한 경우

위의 책, p.1.

위의 글, p.23.

Ibid., pp.3-4.

(7) 같은 글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

① 동일한 저자의 저술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전재옥, 앞의 책, p.33.

최영길, 앞의 글, p.11.

Robinson, op. cit., pp.3-4.

② 동일한 저자의 저술이 여럿일 경우, 두 번째 이상의 인용은 논문이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pp.25-30.

최영길, “꾸란에 등장한 인물연구”, pp.10-12.

Sanneh, “Islam, Christianity, and Public Policy,” p.30.

Robinson,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p.11.

3.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논문 끝에 실으며 다음과 같은 체재로 표시한다.

(1) 책일 경우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Robinson, Neal.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London: Macmillan, 1991.

(2) 논문일 경우

안 신,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 연구』, 제50집(2008 봄), pp.219-245.

Kim, Ah Young, “Quran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ith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 No. 1 (Feb. 2008), pp. 53-72.

***Muslim-Christian Encounter*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 *Muslim-Christian Encounter* (이하 학술지)와 관련하여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자의 윤리)

1. 투고자는 연구자로서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학술적 저작물 집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일체의 표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표절이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으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1)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이 수행한 기존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
 - 2)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유한 생각, 논리, 용어, 자료, 분석방법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3) 출처를 밝혔더라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또는 요약된 형태로 활용하는 행위.
 - 4) 기타 표절성이 현저하다고 간주될만한 모든 행위.
4.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표절 판정을 수긍할 수 없을 경우 반박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반박할만한 사유가 없거나 재심에서 다시 표절 판정이 내려지면 연구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에 관련하여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 이념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원고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관계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표절 행위가 확인된 투고자에 대한 제재를 지체하거나 임의로 제재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표절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 1)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표절 사실 공지.
 - 3)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4) 표절 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에 관하여 일체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표절 심의에 관하여 공표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를 수행함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개인적 이념이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 대상 원고를 평가하는 데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연구자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Muslim-Christian Encounter 투고안내문

한국이슬람연구소는 1992년 창립이후,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이슬람의 이상과 실제],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무슬림여성], 등을 연구지로 발간하였고 2007년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Muslim-Christian Encounter* 라는 이름으로 연구저널을 재 창간하여 년 2차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의 주제는 "Peace, Justice and Muslim-Christian Relations"이며, 2호의 주제는 "Muslim Identities in Contemporary World", 3호의 주제는 "Islamic Da'wah and Christian Mission", 4호의 주제는 "Folk Islam", 5호의 주제는 "현대 이슬람의 다양한 이슈들", 6호의 주제는 "Women In Islam"이었습니다.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이슬람 연구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에 관한 사랑과 노력으로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저널 *Muslim-Christian Encounter* 는 한국 유일의 기독교 이슬람에 관계에 관한 건전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Dudley Woodberry, Peter Riddell, Colin Chapman,과 같은 해외 유명한 이슬람 학자들과 국내의 이슬람 전문가들의 깊이있고 학문적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슬람연구소에서는 *Muslim-Christian Encounter*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이슬람 신학, 정치, 역사, 경제 및 기독교 이슬람관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기독교 선교를 위한 무슬림 전도방법론 등으로 이슬람에 관한 전반적인 이슈들과 기독교 이슬람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한국이슬람연구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하며, 투고된 논문 중 게재 가로 결정 된 논문에 한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논문의 투고 시기는 상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햇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70-7563

E-Mail: ttcis@ttgu.ac.kr

햇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